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8년 11월 13일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18. 11. 12.(월) | 담당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진광 과장(044-203-4340) | 담 당 자 | 박상호 사무관(044-203-4344) |

# 차세대배터리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3사가 힘을 합치기로

## - 1,000억 원 규모 차세대배터리 산업펀드 조성
## - 3개 기업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R&D 추진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11월 12일(월) 웨스틴조선호텔(서울)에서 국내 이차전지 3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**'차세대배터리 펀드 결성과 공동 연구개발(R&D)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식'**과 **「업계 간담회」**를 진행했다.

**< 간담회 개요 >**

○ 일시/장소 : 11.12(월) 12:00~13:10 / 웨스틴조선호텔(바이올렛 2F)

○ 참석자
- **(정부)**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시스템산업정책관 등
- **(업계)** LG화학, 삼성SDI, SK이노베이션 등 전지 3개사 대표,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

□ 간담회에 앞서 이차전지 3개 기업은 **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(IP) 확보와 차세대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**을 위한 **1,000억 원 규모의 '차세대배터리 펀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했다.

**< 차세대배터리 펀드 결성 MOU 개요 >**

◆ 체결 기관 : 삼성SDI(주), (주)LG화학, SK이노베이션(주)

◆ 협력 내용 : ①1,000억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펀드 조성 ②차세대배터리 원천기술(IP) 공동 확보, ③차세대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

◆ 향후 계획 : '19년 1사분기 펀드결성 완료 추진

○ 아울러, **차세대 배터리** 관련 소재·공정·장비 분야의 상용화 핵심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개발(R&D) 추진을 위해 **'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(R&D) 협력 양해각서(MOU)'**를 체결했다.

**< 차세대배터리 핵심기술 공동 R&D 협력 MOU 개요>**

◆ 체결 기관 : 삼성SDI(주), (주)LG화학, SK이노베이션(주)

◆ 협력 내용 : ①정부가 추진 예정인 차세대배터리* 핵심기술 공동 R&D 사업에 공동 투자, ② 차세대배터리 관련된 소재·공정·장비 분야 기술 개발 지원, ③핵심기술을 활용한 조기 상용화 검토·추진 등
* ① 전고체전지, ② 리튬금속전지, ③ 리튬황전지 등 3개 분야

◆ 향후 계획 : 차세대배터리기술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등

□ 성윤모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**"이차전지는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설** 대표적인 고성장 신산업"이자 "전기차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**新에너지 산업의 게임체인저"**라고 언급하고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시장을 놓고 더 안전한, 더 멀리가는, 더 저렴한 배터리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 **3社가 힘을 합쳐 총력 대응**에 나서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.

○ 특히, 세계시장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던 이차전지 3개 기업이 개별연구나 개별대응에서 머물지 않고 합심해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**해외기업의 원천기술(IP) 공격에 공동 대응**하고 **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차세대 산업의 생태계도 같이 만들어** 가기로 한 점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며,

○ 정부도 이와 같은 이차전지 기업의 **기술혁신과 투자를 적극 지원**하겠다고 밝히며 이차전지 업계가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적극 발굴·해소하고, **전기자동차, 에너지저장 등 연관 산업간의 협업** 등 수요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배터리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“오늘 체결한 양해각서(MOU)를 계기로 차세대 배터리 펀드 조성과 공동 연구개발(R&D) 사업기획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제2호, 제3호 배터리 펀드 결성을 기대하며 **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기차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**을 쥘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.”라고 말하고,

○ 이차전지 3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내 소재, 부품, 장비 등 **중소·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**하고 미래기술에 대비한 **전문인력을 적극 양성**해 **일자리 창출에도 노력**해 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※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상호사무관(☎ 044-203-43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